



QUantitative Equity STory

연구원. 이재윤, jyun.lee@sk.com.kr / 3773-8921



2Q22 Preview :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에 Top-pick 업종 선정하기

올해 2분기 실적 : 컨센서스 부합할 정도의 무난한 수준 예상

코스피의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현재 약 61 조원, 순이익은 약 41 조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 -10.7% 감익하는 수준이나, 작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실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영업이익 기준 2분기 컨센서스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꺾여서 현재까지 약 -1.4%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올해 2분기 컨센서스 하향 조정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과거 10년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편이다. 2분기에도 매크로 환경을 함께 감안했을 때 고회율 수혜를 받는 수출주와 인플레이션 수혜주의 호실적이 뒷받침되며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컨센서스 변화

통상 그렇듯이, 실적시즌 동안 이번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여부가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조정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 변화가 특히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현재 증시의センチ멘트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인데, 시장에서 보는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인건비와 운임 상승의 영향이 하반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익 악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 자동차 업종 Top-pick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높은 수준의 물가 지속 등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익 컨센서스는 향후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수가 적은 현재 상황은 이익 모멘텀 희소성이 부각되기 좋은 국면이다. 1) 1M 기준의 컨센서스, 2) 아웃라이어 추정치를 함께 이용해 판단했을 때, 자동차 업종을 Top-pick으로 제시한다.

올해 2분기 예상 실적 vs.
과거 10년간의 2분기 실적과의 비교

올해 2분기 실적 : 컨센서스 부합할 정도의 무난한 수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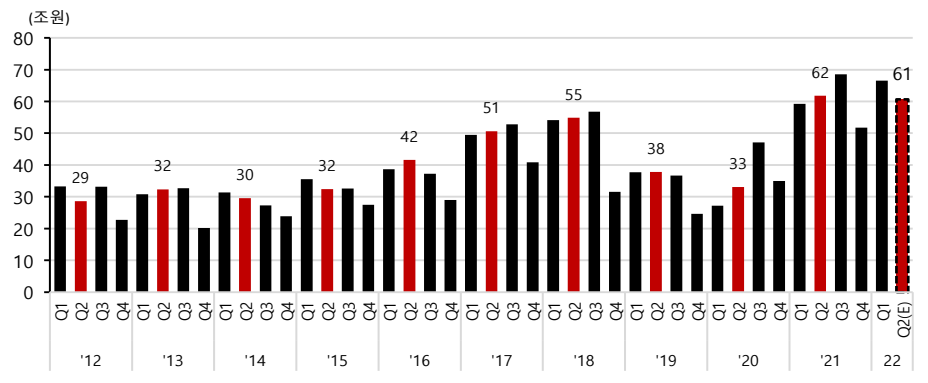
코스피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현재 약 61 조원, 순이익은 약 41 조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 -10.7% 감익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 1, 2]에서 보듯,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작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실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2분기 실적 공시 마감 기한(8월 16일)을 약 한 달 남겨놓고 있다. 과거 10년간의 2분기 컨센서스의 추이를 볼 때, 2016년부터 실제 2분기 확정치는 마감 기한 한달 전(7월 중순) 시점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근래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뜻이다. [그림 5]

올해 2분기 컨센서스는 상향조정 추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6월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1.4%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의 과거 10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2분기 컨센서스 하향 조정률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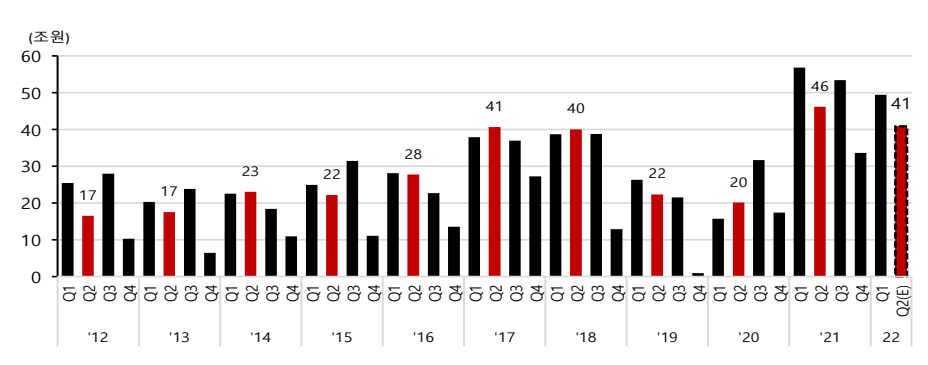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우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번 2분기 실적까지는 현재 시점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익될 수 있으나,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이번 2분기 실적은 무난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과거 10년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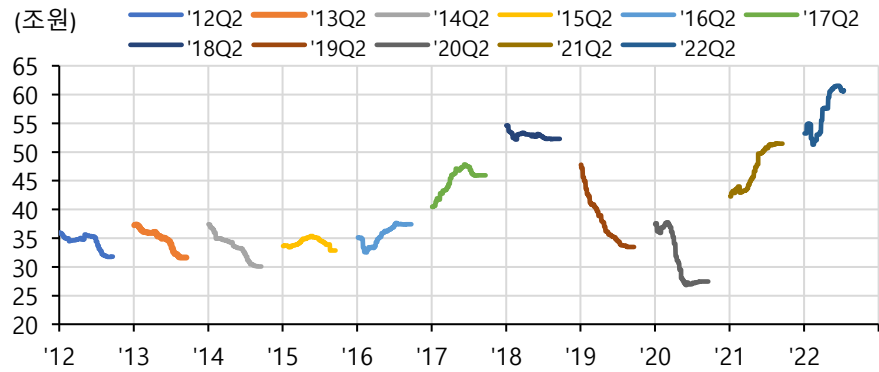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2] 과거 10년 코스피 분기별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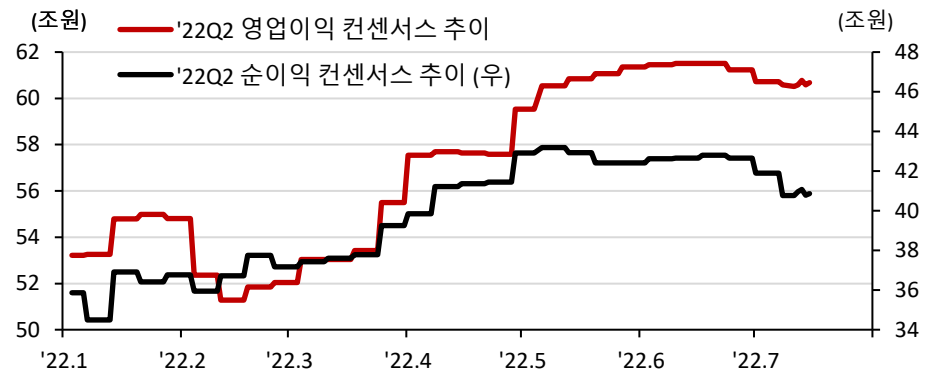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3] 최근 10년 코스피 2Q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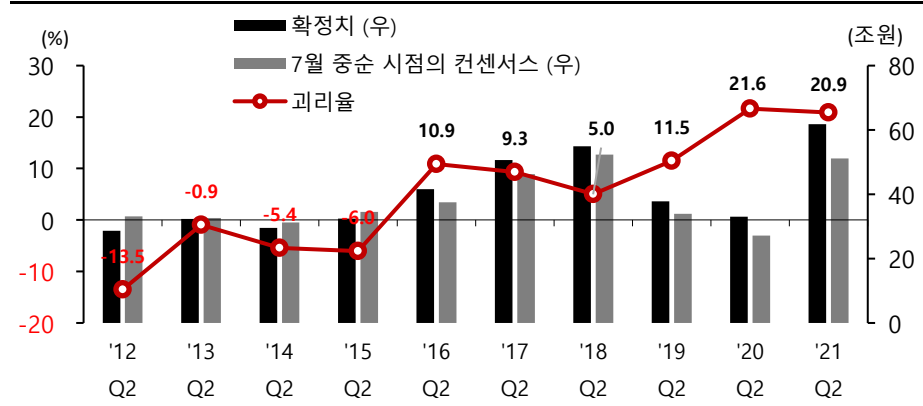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4] 올해 2Q 영업이익 및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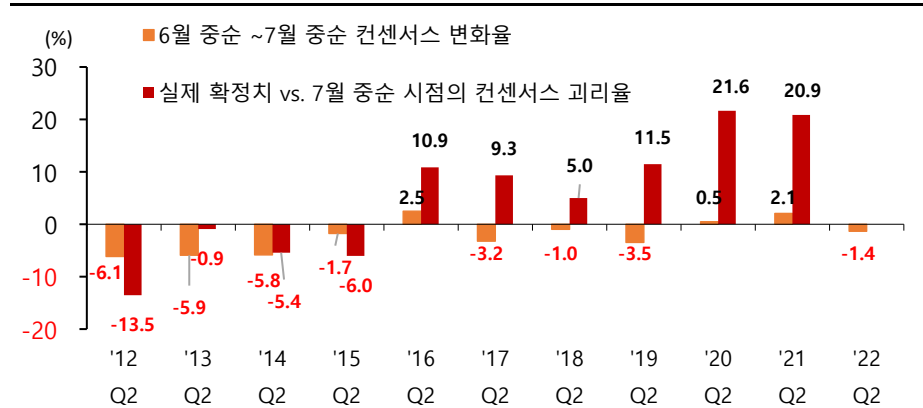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5] 7월 중순 시점의 2Q 영업이익 컨센서스 vs 실제 영업이익 확정치 괴리율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6] 올해 2Q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달간 약 -1.4% 하향조정됐으나, 과거 대비 하향조정폭 크지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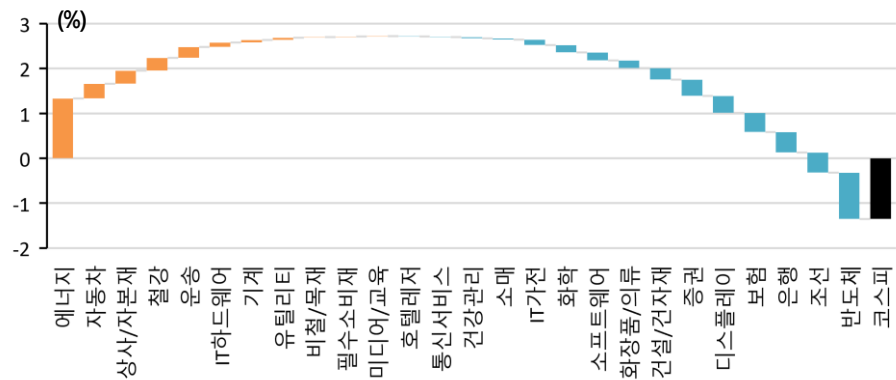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올해 2분기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 변화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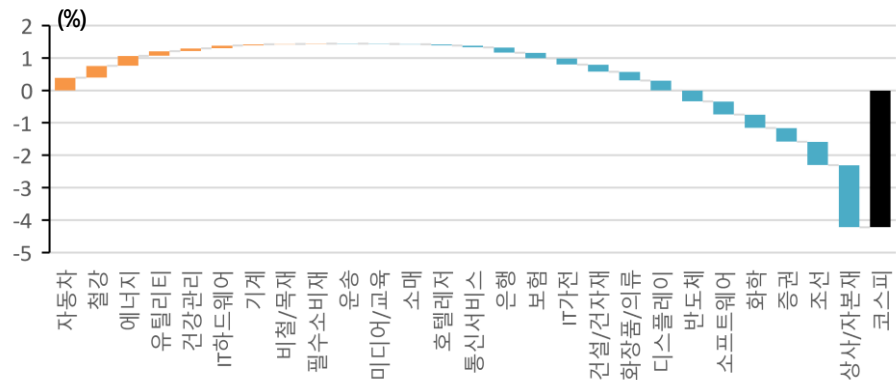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한달간 -1.4% 하향 조정된 것을 업종별 기여도로 분해해보면,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이익 하향조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다음으로 조선업종의 이익 하향이 코스피 전체 이익 하향조정에 기여했다. 반면, 에너지와 자동차 업종은 (+) 기여를 해, 코스피의 이익 하향 조정분을 상쇄했다. [그림 7] 순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컨센서스는 최근 한달간 -4.2% 하향 조정됐는데, 상사/자본채와 조선업종의 순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 영향이 컸다. 반면, 자동차 업종의 경우, 순이익 기준으로도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에 (+) 기여를 했다. [그림 8]

[그림 7] 올해 2Q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한달간 변화율 - 업종별 기여도 Breakdown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8] 올해 2Q 순이익 컨센서스의 한달간 변화율 - 업종별 기여도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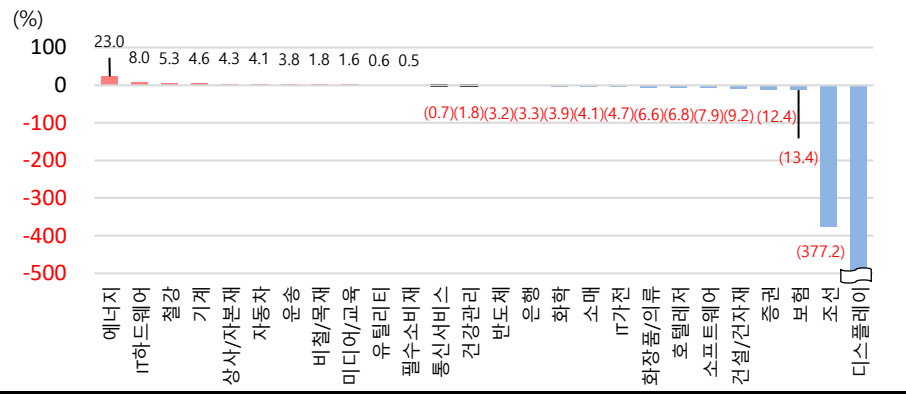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업종별 올해 2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최근 변화 비교

업종별 코스피 이익 변화율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업종별 이익 컨센서스 변화율로 비교했을 때, 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률이 크게 이뤄지고 있는 업종은 에너지, ITHW, 철강, 기계, 자동차 업종이고 반면에, 디스플레이, 조선 업종은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유틸리티 업종은 한달 전 컨센서스보다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6 개 업종 중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 수가 하향 조정된 수보다 적으며, 상향 조정폭도 하향 조정된 업종들의 조정폭보다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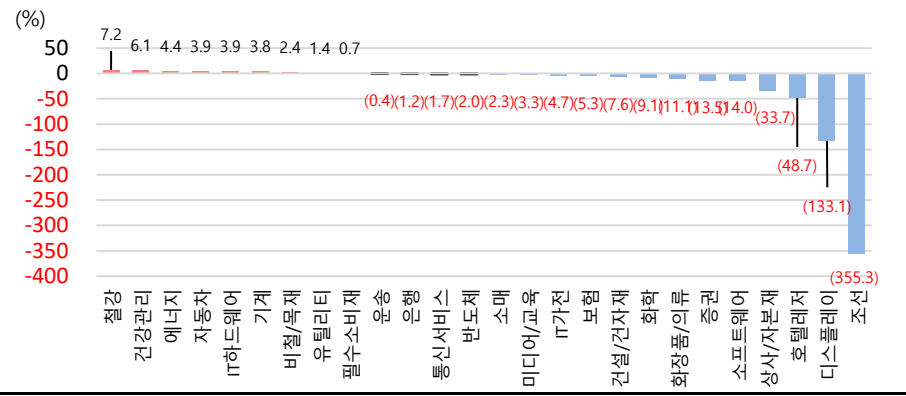
이익 추정치 변화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근 1 개월 추정치들을 평균한 컨센서스로 봤을 때, 에너지, 기계, ITHW, 자동차,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미디어/교육, 유통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최근 상향조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 9] 올해 2Q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업종별 한달간 변화율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10] 올해 2Q 순이익 컨센서스의 업종별 한달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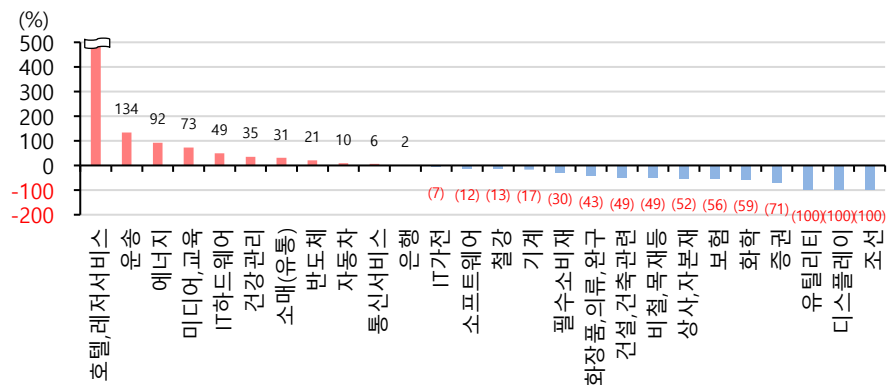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업종별 올해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예상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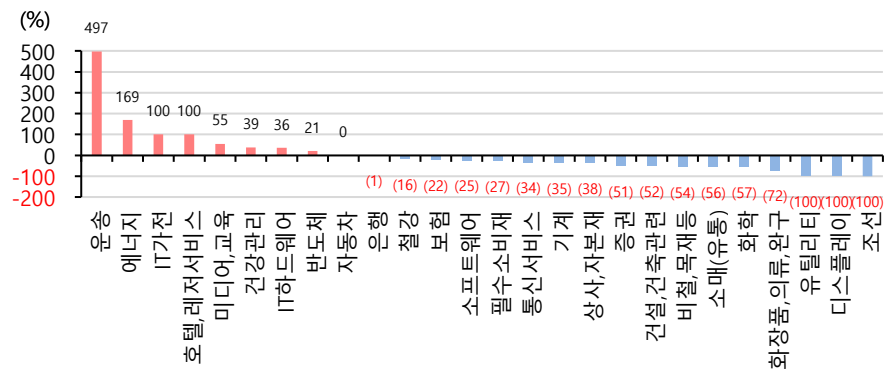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전년동기 대비 증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수는 감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수보다 적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작년 2분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호텔/레저, 운송, 에너지, 미디어/교육, ITHW, 건강관리,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전년대비 크게 감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조선,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다.

[그림 11] 업종별 예상 올해 2Q 영업이익 YoY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전년동기 대비 흑전의 경우 100%, 적전 또는 적지의 경우 -100% 처리

[그림 12] 업종별 예상 올해 2Q 순이익 YoY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전년동기 대비 흑전의 경우 100%, 적전 또는 적지의 경우 -100% 처리

결론적으로 컨센서스의 최근 한달 간 변화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2 분기는 교환율 수혜를 받는 수출주(자동차, ITHW)와 인플레이션 수혜주(에너지)의 호실적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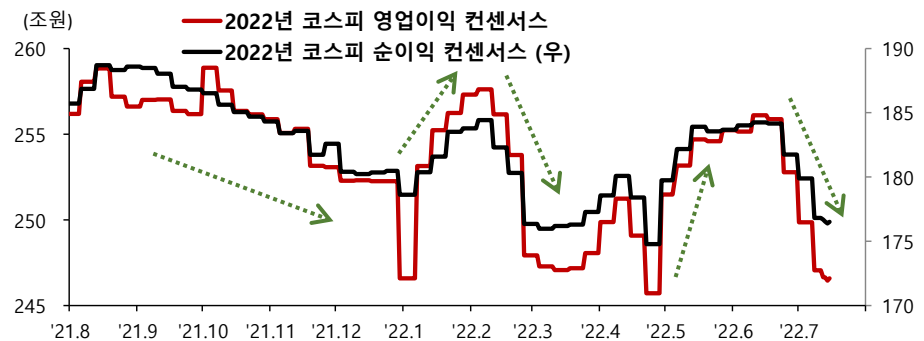
문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컨센서스 변화

이번 실적시즌,
2분기 실적 확인 후
조정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실적
에 대한 기대치 변화가
주가의 큰 동인이 될 것

통상 그렇듯이, 실적시즌 동안 이번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여부가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조정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 변화가 특히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현재 증시의センチ멘트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인데, 시장에서 보는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인건비와 운임 상승의 영향이 하반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익 악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의 올해(2022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는 한달 전 대비 약 -3.7%, -4.1% 하향되며 이익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 작년 9월부터 꺾이기 시작한 2022년 순이익은 연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하기도 했으나, 러-우 전쟁 발발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1분기 동안 다시금 하향세로 전환했다. 그러다가, 예상대비 1분기 실적이 견조하자, 1분기 실적시즌 중인 5월부터 컨센서스가 다시 상향 조정세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6월 중순경부터 다시 하향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 KOSPI의 2022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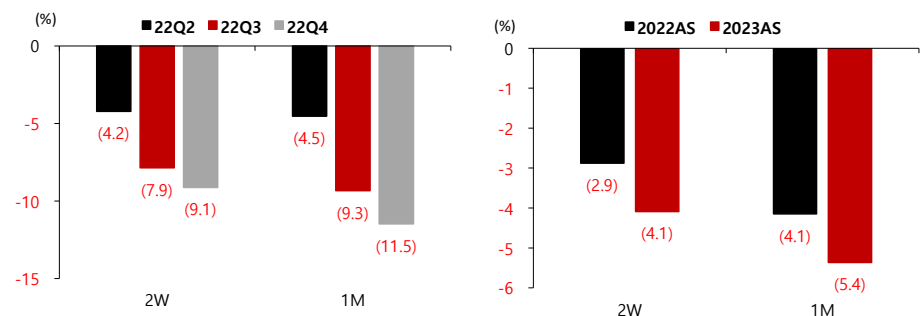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가파르게 하향 조정 중인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올해 실적 내에서 보면, 2분기보다 하반기(3분기와 4분기) 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올해보다도 내년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가 더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향후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더 크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4] 2Q 보다 3Q&4Q,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의 하향조정폭 더 큼 (순이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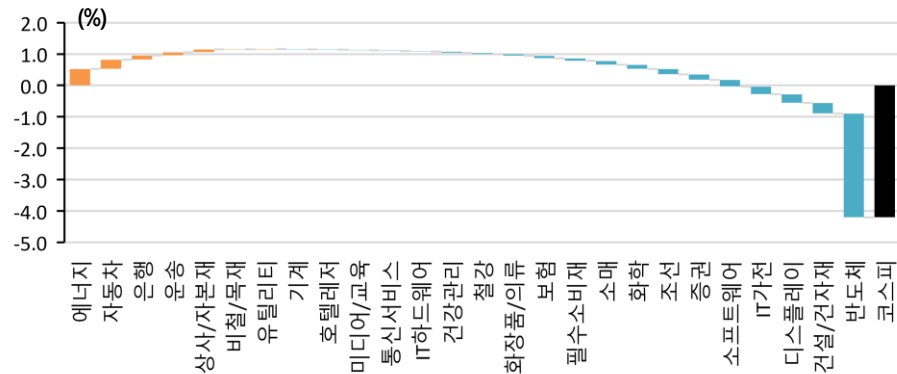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올해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변화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

최근 한달간 올해(FY2022)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의 변화율을 업종별 기여도로 분해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에너지 업종의 이익 상향 기여도가 그동안의 유가 상승에 힘입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의 이익 상향 기여도가 높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2분기뿐만 아니라, 3 분기와 4 분기의 이익 컨센서스도 함께 상향 조정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 우려로 향후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2, 3, 4 분기 모두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2 분기보다도 3 분기와 4 분기의 하향조정폭이 더 가파르다. 다음으로는, 건설/건설자재 업종이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를 끌어내렸다. 건설/건설자재 업종은 자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 진행률 속도 둔화 등에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됐다. 다만 향후 주택 공급 기대감 등에 2 분기보다는 하반기 하향조정폭이 비교적 작다.

[그림 15] KOSPI의 2022년(올해) 순이익 컨센서스의 최근 한달간 변화율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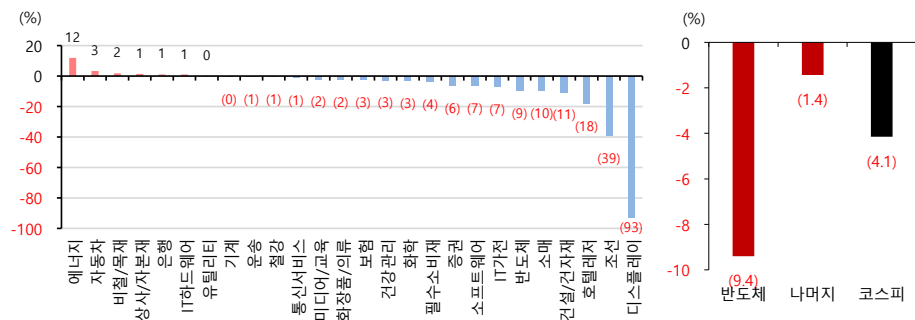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반도체 업종 제외
나머지 업종들의
이익 컨센서스 변화**

코스피 전체 업종 순이익 컨센서스가 약 -4% 하향 조정되었는데,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순이익 컨센서스는 최근 한 달간 -1.4% 하향 조정됐다. 반도체 업종 이익 하향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의 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 수는 7 개에 불과해 하향 조정 업종 수에 비해 훨씬 적다. (이익 모멘텀 회소성)

[그림 16] 업종별 최근 한달간 2022년(올해) 순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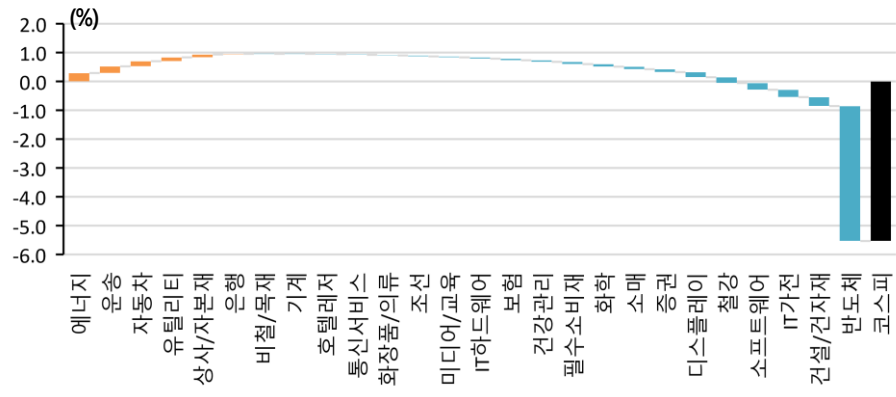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올해와 내년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하향 조정된 업종들이
대부분

⇒ 이익 모멘텀이
희소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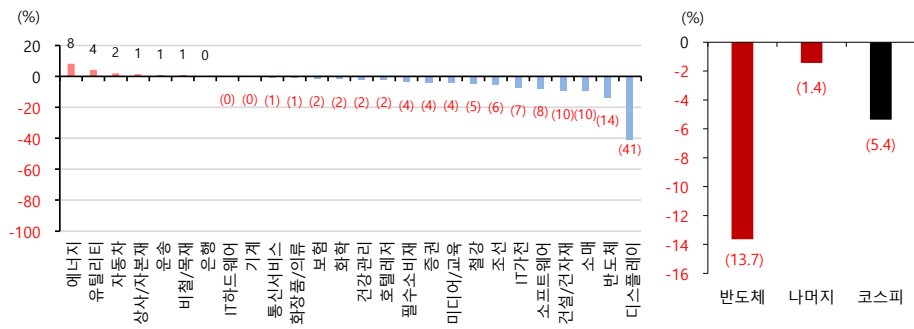
코스피의 내년(FY2023) 순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는 올해(FY2022)의 그것과 형태가 비슷하다.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이익 하향 조정의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자동차, 운송 업종의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기여도가 큰 편이다. 또,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 수는 7 개에 불과해 하향 조정된 업종 수에 비해 훨씬 적다. (이익 모멘텀 희소성)

[그림 17] KOSPI의 2023 년(내년) 순이익 컨센서스의 최근 한달간 변화율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18] 업종별 최근 한달간 2023 년(내년) 순이익 컨센서스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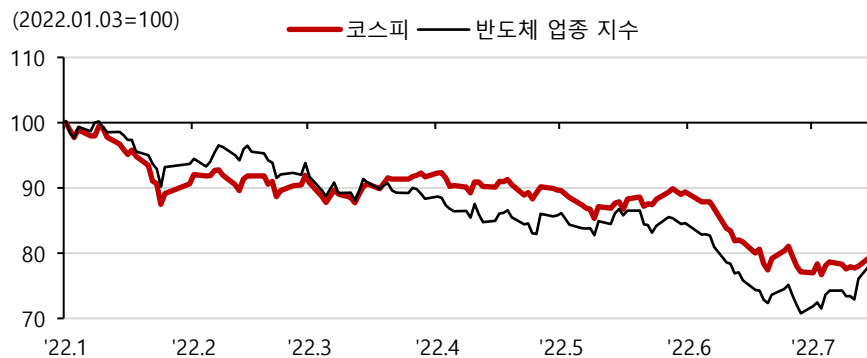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반도체 업종은
최근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하향과
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

올해와 내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가 6월 중순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코스피 지수 또한 시가총액 1위 업종인 반도체의 업종의 부진이 코스피 하락세에 크게 기여했다. 스마트폰, PC 등 전방 산업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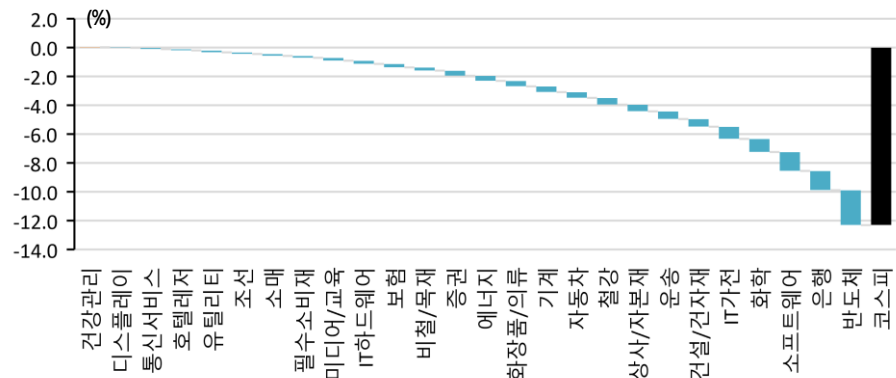
다만, 최근 TSMC의 어닝서프라이즈 소식과 함께, 수요 둔화에 대비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설비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소식에 수급 부담 우려가 완화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낮은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만약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고, 여기에 물가 둔화 신호까지 감지된다면, 올해 하반기 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9] 올해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 업종 지수 퍼포먼스 추이



자료: FnGuide, SK 증권

[그림 20] 지난 6월부터 코스피가 약 12%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음



자료: FnGuide, SK 증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의 대응 전략 : 자동차 업종 Top-p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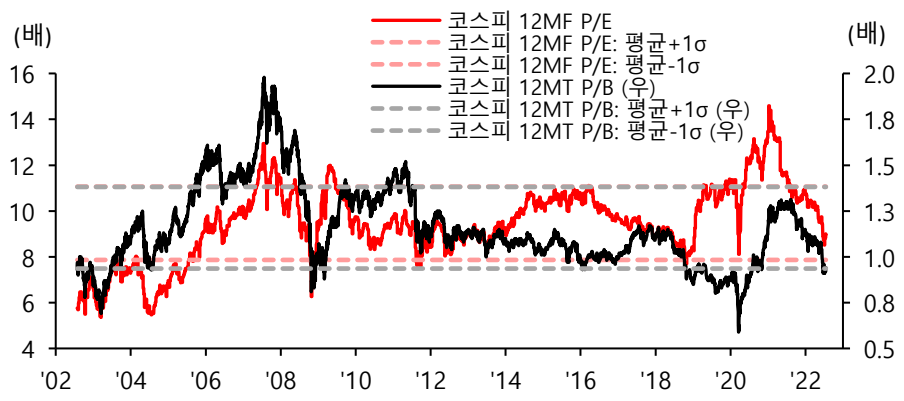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

연초부터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 코로나 봉쇄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화된 인플레이션이 국내 증시 포함 글로벌 증시를 눌러왔다.

주가가 이익 컨센서스보다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12개월 선행 PER은 지난 7월 초 코로나 초기 수준인 8.5 배까지 하락했고, 안전한 지지선이라고 인식되던 12개월 후행 PBR 1 배도 무너졌었다. 현재 12개월 선행 PER은 9 배까지 올라왔으나, 12개월 후행 PBR은 여전히 1 배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높은 수준의 물가 지속 등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익 컨센서스는 향후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주가가 먼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속도는 최근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21] 과거 20년 KOSPI의 12M 선행 PER 및 12M 후행 PBR 추이



자료: FnGuide, SK 증권

이익 모멘텀 회소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향후 이익 컨센서스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

- 1) 1개월 기준의 컨센서스 이용
- 2) 아웃라이어 추정치 이용

더불어,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보다 하향 조정되는 업종 수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익 모멘텀 회소성이 부각되기 좋은 국면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이익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폭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하반기와 내년의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판단해보자.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익 컨센서스는 통상 최근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이익 추정치들의 평균값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컨센서스를 계산할 때 평균하는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최근 추정치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최근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민감하게 잡아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는, 평균하는 기간을 1개월로 좁혀 평균하는 1개월 기준의 컨센서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래의 이익 추정치들의 분포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이익 추정치가 발생할 때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이후 타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치를 기존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아웃라이어’ 추정치라고 부르겠다.

1) 1개월 기준의 컨센서스를 3개월 기준의 컨센서스와 함께 이용

통상 사용되는
3개월 기준의 컨센서스
뿐만 아니라
1개월 기준의 컨센서스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면,
컨센서스 상향조정 추세
지속 가능성 ↑

올해 하반기 & 내년
모두 상향조정 되는 업종
은 자동차 업종

이익 추정치의 최근 변화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해, 1개월 기준의 컨센서스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익 컨센서스 변화율을 업종간 비교할 때, 통상 쓰이는 3개월 기준의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1개월 기준의 컨센서스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면, 해당 업종의 이익 컨센서스가 향후에도 상향 조정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시기에 대한 3개월 기준과 1개월 기준의 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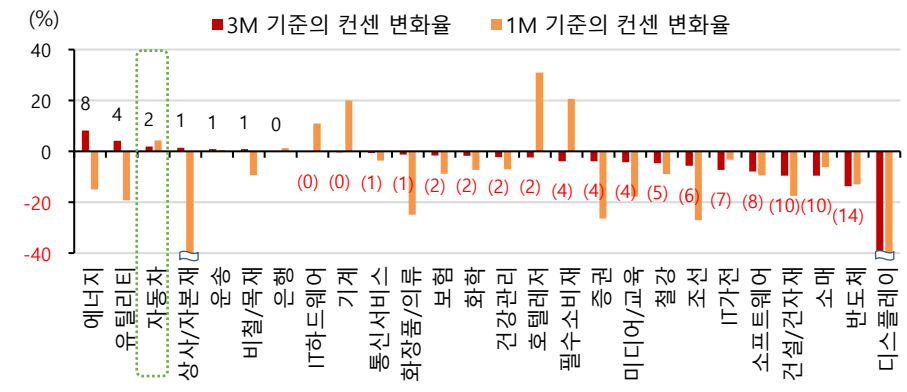
자동차 업종은 올해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익 모델이 모두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완성차 업황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자동차 생산 가동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생산 차질로 인해 그동안 대기 수요가 축적되었고, 높은 수요로 인해 판가 인상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역대 최저치 수준의 재고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달러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크로 상황에서, 고환율로 인한 증익 효과도 자동차 업종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림 22] 업종별 2022년(올해) 3M 및 1M 기준의 순이익 컨센서스 최근 한달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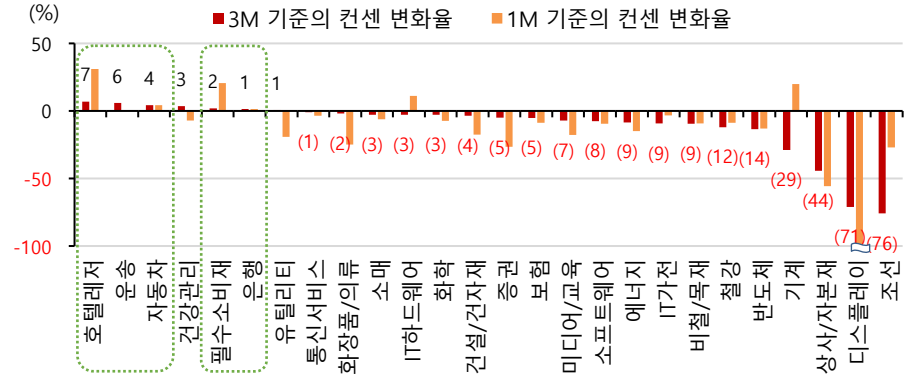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3M 및 1M 기준의 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 표시

[그림 23] 업종별 2023년(내년) 3M 및 1M 기준의 순이익 컨센서스 최근 한달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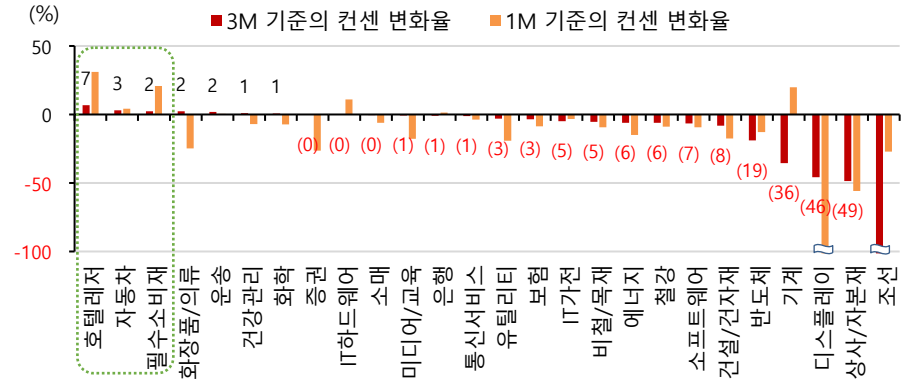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3M 및 1M 기준의 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 표시

[그림 24] 업종별 올해 3분기 3M 및 1M 기준의 순이익 컨센서스 최근 한달간 변화율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3M 및 1M 기준의 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 표시

[그림 25] 업종별 올해 4분기 3M 및 1M 기준의 순이익 컨센서스 최근 한달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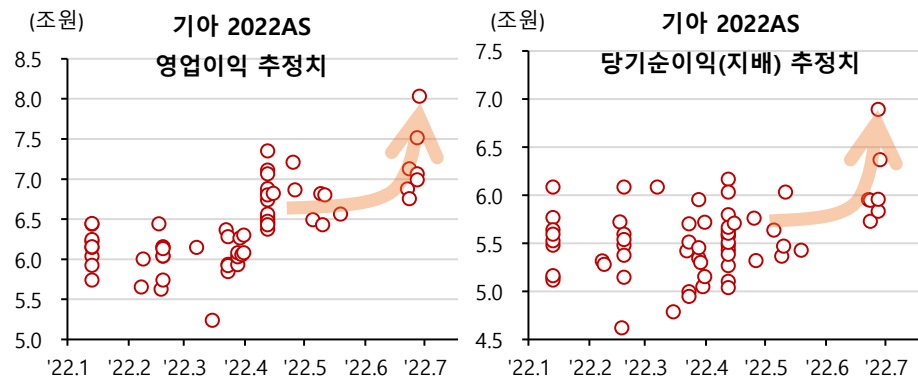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 주: 3M 및 1M 기준의 이익 컨센서스가 모두 상향조정되고 있는 업종 표시

2) 기존의 컨센서스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아웃라이어 추정치 이용

자동차 업종 내
기아 종목에서
상향 아웃라이어 추정치
발생

특히, 최근 자동차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2 위인 ‘기아’ 종목에서 상향 아웃라이어 추정치가 발생했다. 상향 아웃라이어 추정치 기준은 한달 전의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이익 추정치들 중 최고치를 10% 이상 상회하고 동시에 현재 컨센서스도 10% 이상 상회하는 기준으로 설정했다. 근래의 이익 추정치들의 분포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새로운 이익 추정치로, 기존에 없던 의견을 제시한 자신감있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향후 컨센서스를 선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아의 이익 컨센서스가 향후에도 상향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림 26] 자동차 업종 중 기아, 이전 컨센서스 범위를 넘어서는 아웃라이어 추정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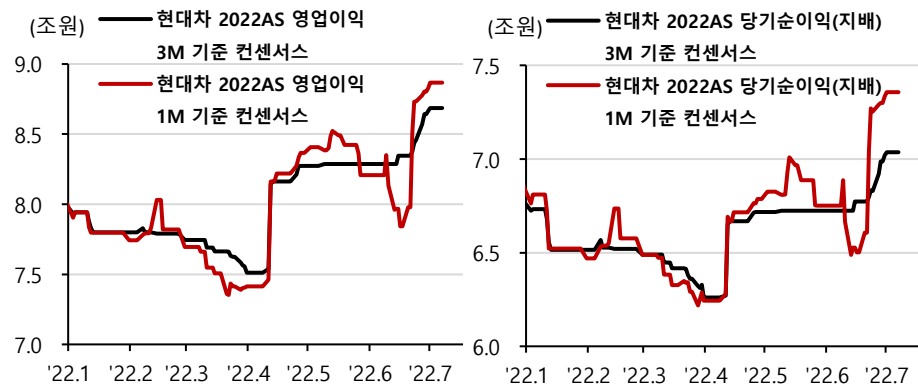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이익 모멘텀 희소성 높고
향후 이익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업종 Top-pick

또 다른 완성차 종목인 ‘현대차’의 경우, 최근 아웃라이어 추정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추정치에 더 민감한 1M 기준의 컨센서스가 3M 기준의 컨센서스보다 더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림 27] 자동차 업종 중 현대차, 최근 1M 기준의 컨센서스가 3M 기준의 컨센서스보다 가파르게 상향조정



자료 FnGuide, SK 증권

결론적으로, 1) 1M 기준 컨센서스와 2) 아웃라이어 추정치를 함께 이용한 기준으로 볼 때, 공통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포함된다. 결국, 자동차 업종의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익에서 타 업종 대비 이익 모멘텀 희소성이 높고, 앞으로도 이익 컨센서스 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완성차) 업종을 Top-pick 으로 제시한다.